

고하 송진우선생 탄신 127주년 추모식

## 추 모 사

- 장소 :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묘역
- 일시 : 2017년 5월 8일(월) 오전 11:30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 추 모 사

오늘은 존경하는 고하 송진우 선생님의 127주년 탄신일입니다. 그리고 금년은 광복 72주년이며, 선생님께서 서거하신지 72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언제나와 같이 올해에도 선생님을 사모하고 존경하는 많은 분들께서 이곳 국립서울현충원 애국지사 묘역에 모셔진 선생님의 유택(幽宅) 앞에 모여 선생님의 항일독립과 민족자강, 그리고 민주건국의 숭고한 정신을 회상하면서 추모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난해는 세계경제가 극히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면에서는 계속 흑자를 가져왔으나 금년에도 전반적으로 경제성장이 저조한 상태이며,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결정에 따라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를 내일 (5월 9일) 전국에서 실시할 예정임을 보고 올립니다.

고하 선생님,

선생님께서 평생을 바쳐 펼치신 독립과 수많은 애국운동(愛國運動)에 대하여는 조금 전에 김종필(金鍾弼) 중앙고등학교 교장선생님께서 봉독해주신 선생님의 약전(略傳)보고 말씀을 듣고 우리들은 크게 감명을 받았으며 이를 가슴속 깊이 새겼습니다.

절망적이었던 일제 암흑기에도 우리의 밝은 미래를 직시(直視)하시고 조국광복(祖國光復)을 위하여 직접 행동으로 실천하신 선생님의 애국(愛國) 애족(愛族) 애민(愛民) 운동은 우리역사의 선각자(先覺者)로서 미래에 대한 선견(先見)을 가지시고 우리의 선두(先頭)에 서서 이끌어 가시는 큰 지도자(指導者)로서의 역할을 다하신 것으로서 우리 모두에게 나라사랑에 대한 크나큰 교훈(教訓)과 감명(感銘)을 주셨습니다.

고하 선생님의 평생의 친구요 동지이신 위당 정인보(爲堂 鄭寅普) 선생님은 고하 선생님을 충무공(忠武公)과 비견하시면서 지조와 경륜, 애국심을 겸비한 선생님의 독야청청의 일생을 기리셨습니다.

선생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몇 가지를 더 보고 올리겠습니다.

가. 정부도 없고 일제(日帝)의 탄압이 극심했던 시절 민족의 구심점으로서 선생님께서 씨뿌려 일구어 내신 민족지 동아일보를 비롯한 동아미디어그룹은 임직원 이하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민족의 표현기관으로 민주주의를 유지해가며 선생님께서 남기신 유지를 받들어 착실히 경영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창간 97주년을 맞이하여 앞으로 분단체제를 넘어 한민족 모두가 행복한 통일한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나. 전남 담양에 있는 선생님 생가와 새로 건립한 “근대역사문화교육관 (近代歷史文化教育館)”은 건물에 대한 작업과 환경정리 사업이 일응 완료되었고 정인보(鄭寅普) 선생님께서 비문(碑文)을 지으시고 또한 써주신 선생님에 대한 추모비를 근대역사문화교육관 경내에 이설하고 유품전시를 완료함으로써 생가복원사업도 일응 마무리하였습니다. 그간 본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신 국가보훈처와 전라남도, 그리고 담양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 서울지방보훈청의 국고지원으로 서울어린이대공원 내에 있는 선생님의 노후된 동상을 개보수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시민들에게 항일독립운동과 민주건국을 위해 애쓰신 선생님의 업적을 널리 알리어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고 존경심으로 높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 기념사업회에서는

① 1995년부터 2016년까지의 탄신추모강연과 서거 70주기 추모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을 모아서 “고하 송진우의 항일독립과 민주건국 활동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 배포하였습니다.

② 2016년 11월 23일 종로구와 증양고등학교의 후원으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증양고등학교에서 “증양학교의 독립운동과 고하송진우 선생의 역할”이란 주제로 “김학준” 단국대 및 한동대 석좌교수가 선생님에 대한 추모 특별강연을 하였습니다.

③ 2017년 4월 10일 (재)서재필기념회에서는 선생님을 일제강점기중의 인론인으로서 처음으로 “2017년 민족언론인”으로 선정하여 그 업적과 존영을 담은

동판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 헌정하였습니다.

④ 2017년 4월 28일 서울 종로구는 선생님의 아호를 따서 선생님의 고택부근의 도로에 “고하길”이라는 명예도로명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기화로 2년후 3·1운동 백주년을 기념하는 사업의 중심지는 종로구와 중앙고등학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손이신 송상현 박사는 세계적으로 국제분쟁이 격화되고 있는 어려운 시기에 국제형사재판소장의 증책을 맡아 12년간 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제형사재판제도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에 대한 국제간의 신뢰(信賴)와 국격(國格)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송박사는 장기간 봉사해왔던 유니세프한국위원회(UNICEF 유엔아동기금) 회장으로서 어린이들과 여성의 권익증진에 계속 노력하는 한편, 학계와 법조계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특히 오늘 이 자리에서 선생님의 약전을 봉독해주신 김종필 중앙고등학교장선생님, 추모사를 해주실 윤종오 서울남부보훈지청장님, 나중화 광복회 부회장님, 그리고 추모강연을 해주실 김명섭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님께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를 대표하여 중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바쁘신 중에도 추모식에 참석해 주신 고귀하신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고하 선생님, 저희들은 선생님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받들어 이 나라를 부강한 선진 복지국가로 가꿔 나가겠사오니 저희들을 계속 이끌어 주시고 하늘나라에서 편안하시기를 축원하면서 추모의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 5월 8일

고하 송진우선생기념사업회  
이사장 김창식